

##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회화를 응용한 애슬레저 패션 디자인

김예솔 · 장정임\* · 이연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겸임교수\* ·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thleisure fashion design applied Laszlo Moholy-Nagy's paintings

Yesool Kim · Jungim Jang\* · Younhee Lee\*\*†

Mast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Seoul

Adjunc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Seoul†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Seoul\*\*†

(2021. 2. 28 접수; 2021. 4. 8 수정; 2021. 4. 10 채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multiple directions of fashion design by producing differentiated athleisure fashion designs with functional materials based on existing sportswear. A design utilizing handcraft skill was developed by applying the design characteristics of Laszlo Moholy-Nagy's paintings. With respect to the study methods, the background of Laszlo Moholy-Nagy's paintings were analyzed and their historical background was investigated by employing previous studies and literature review. The design characteristics were classified by issue and time-perio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easibility of creative artwork expression was found by pursuing collaboration with artwork and fashion by applying the motives of the fashion with the characteristics by the times, lines, forms, colors, and overlapping in Moholy-Nagy's paintings. Second, athleisure fashion, which can mix-match with casual wear, was found to enhance not only creativity but also add value by applying design, which added multiple handcraft element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functionality, aesthetics, practicality, appealability, ostentation, activity, and dynamism. Third, potential harmony was found with achromatic and chromatic colors that can express more dynamic and active images. Based on the study results, further studies are anticipated using multiple paintings.

*Key Words:* Laszlo Moholy-Nagy's painting(라슬로 모홀리 나기 회화), athleisure fashion design(애슬레저 패션디자인), multiple handcraft(다양한 수작업)

---

†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82-2-2220-1195  
E-mail : yiyhee@hanyang.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 I. 서론

오늘날 경제 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 되고 현대인들은 건강증진을 위해 도심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스포츠에 관심이 늘고 있다. 넷베이스(Netbase)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 중 1, 2위를 나이키와 아디다스가 각각 차지했고 나이키의 매출은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을 제쳐 브랜드 가치가 1위로 올라가는 등 스포츠 웨어에 대한 인기를 무시할 수 없다(국제섬유신문, 어패럴 뉴스). 이처럼 도심형 스포츠가 대중화 되면서 스포츠웨어와 일상복의 장점을 살린 애슬레저 패션(athleisure fashion)에도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최근 애슬레저 시장의 인기는 포화상태에 도달했고 경쟁의 성숙기로서 새로운 소재의 개발, 트렌드의 변화에 노력이 요구된다(데일리뉴스).

획일화된 패션을 창의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예술 작품을 패션에 도입하는 방법은 입생로랑(Yves Saint Laurent)과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셀린(Celine)과 호안 미로(Joan Miro)의 합작과 같은 유명 디자이너와 아티스트 작품의 콜라보레이션으로 계속 되어 왔다. 예술 작품은 현실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과 동시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감을 주는 방법 중 하나로서 다른 장르의 작품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

본 연구는 헝가리의 멀티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시각 예술가이며 독일의 바우하우스 교수였던 라슬로 모홀리 나기(Laszlo Moholy Nagy)의 회화 작품을 모티프로 응용하여 애슬레저 패션과 기하학적 모티브를 활용한 디자인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모홀리 나기의 작품은 각 시대의 예술 운동과 역사적 사건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관심의 주제가 되고 있는 20세기 초기 역사의 산물이다. 이러한 라슬로 모홀리 나기 관련 선행 연구는 주로 교육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 연구로 한정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라슬로 모홀리 나기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기존의 스포츠 웨어와는 차별화 된 디자인과 기능적인 소재, 수공

예적 기법이 활용된 애슬레저 패션 디자인을 전개, 제작하여 패션 디자인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라슬로 모홀리 나기 작품의 형성 배경과 예술사적 배경을 조사하고 시대별 이슈를 통해 분류하고, 모홀리 나기 회화 작품의 조형적 특성인 선과 형태, 색상, 중첩에 대해 조사하고 시대별로 정리한다.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작품은 모홀리나기 사이트 및 유명 미술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집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애슬레저(Athleisure)의 개념, 정의, 특성을 문헌 조사와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알아보고, 애슬레저 패션의 특성을 정리한다. 이러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모홀리 나기 회화의 조형적 특성과 수공예적 기법을 활용한 4점의 여성복 애슬레저 패션 디자인을 전개 제작하였다.

## II. 이론적 고찰

### 1.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회화

#### 1) 라슬로 모홀리 나기 회화의 형성 배경

1895년 헝가리에서 태어난 라슬로 모홀리 나기는 예술가이자 작가이고 뛰어난 교육자였다. 1차 세계 대전 중 서양 세계를 뒤덮은 문화적인 과도기의 기간에 예술가로 데뷔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전쟁이 억압했던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근대주의의 경향이 꽃 필 수 있었고 모홀리 나기는 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참여자가 되어 점차적으로 예술계 최고의 자리에 앉았다. 모홀리 나기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는데 그로 인해 다양한 예술 운동을 접하고 작품 활동을 이루어 나갔는데 러시아의 구성주의는 그의 모태가 되는 예술 운동이다.

모홀리 나기의 삶과 예술은 1차 세계 대전과 2차 세계 대전을 기점으로 세 단계의 역사를 가진다. 1차 세계 대전 이후 모더니즘과 유토피아사상의 정점을 찍고 실천과 실험을 주도 해온 유럽에서의 삶과 2차 세계 대전 이후 경제의 공황과 악몽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시대 출발의 경험을 겪은 디자인의 교육의 현대화와 예술의 기초를 산

업디자인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던 미국에서의 삶이다(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05). 그의 전공은 법학이었지만 취미로 시작한 미술 회화에 열정을 쏟았다. 미술을 시작한 초기에는 표현주의적 경향을 보였고 1919년 이후 헝가리의 행위주의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MA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 후 베를린에서의 생활은 그의 기계 회화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지 않은 장소였고 예술가들과 교류를 하며 당시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절대주의와 러시아 구축주의를 접했다. 이 당시 경험했던 구축주의를 중심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이 후 다다이즘, 구성주의, 아방가르드 등 하나에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예술 운동들을 작품 속에 담았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모홀리 나기는 평범한 법학도에서 전쟁을 거쳐 다양한 예술 운동을 아우르는 독일 바우하우스의 교수, 과학기술과 예술을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시각예술의 전방위 예술가라고 할 수 있다(박신의, 2017).

## 2) 라슬로 모홀리 나기 회화의 시대별 변화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신의, 2017)와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작품 표현 기법의 변화를 큰 이슈로 삼아 연도별로 나누었다. 모홀리 나기가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한 1918년대부터 1921년까지를 초기, 빛을 회화의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받아들이고 모방하기 위해 가벼운 색채 표현기법이 나오는 1922년부터 1938년까지를 중기, 새로운 투명한 재료를 사용해 새로운 표현의 매체로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한 1939년부터 마지막 회화 작품이 제작된 1946년을 후기로 나누어 모홀리 나기의 생애를 살펴보았다.

### (1) 초기(1918~1921)

라슬로 모홀리 나기는 1918년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 하면서 유기적인 곡선을 이용한 자화상 작품 'Self Portrait'(그림 1)으로 헝가리 전위주의 단체 'MA'(오늘 이라는 의미)에서 창작 활동을 펼쳐 나가 1918년 표현주의의 예술가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1919년 11월, 비엔나에서 예술적 비전을 가진 작가들과 생각을 함께 할 때 모홀리 나기

의 그림은 형식화 되거나 직선적인 요소들로 축소되어 표현되었지만 모홀리 나기의 초기 회화 작품 'Tilled Fields'(그림 2)와 같이 헝가리의 전원 풍경을 단순하게 표현한 것처럼 구, 원추, 원통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을 가진 입체파의 형식에 더 가깝게 느껴졌다.

모홀리 나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다다이즘의 예술적 표현이 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그의 회화가 추상적으로 바뀌었는데 초기 구성주의 회화는 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정미경, 1995). 1920년 예술과 정치적인 갈등이 함께 존재하는 베를린에서 다다이즘을 경험하였고 당시 독일의 북쪽에 위치한 베를린의 지리적 특성 덕분에 다른 지역보다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예술 운동이 일어나고 그에 영향을 받은 모홀리 나기는 기계와 예술의 결합을 시도하였다(박신의, 2017). 모홀리 나기는 다다이즘의 화가인 프랑스 파리 출신의 프란시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의 회화 중 기계 시리즈에 영감을 받아 'MA'의 표지로 모터, 벨트로 작동하는 기계를 소재로 삼은 드로잉 'Peace Machine Devours Itself'(그림 3)와 기계의 예술과 무관한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해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의미인 'Bridges'(그림 4)을 예로 들 수 있다(박상우, 2014).

모홀리 나기는 다다이즘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운동을 수용했다. 1920년대에 일어난 전위적 추상미술인 구축주의는 반사실주의(Anti-realism)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구성(Kompozitsija)과 구축(Konstruksija)은 단어 정의로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예술가들은 구성과 구축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했고 총 9번의 회의 끝에 구성은 예술가들의 자적인 요소에 의지하고 예술가 개인의 취향에 따른 목적 없는 작품 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구축은 목적을 가지고 과학 기술에 의존하는 제작으로 정의 되었다(최진석, 2016). 새로운 매체, 새로운 예술가를 원했던 모홀리 나기는 공산주의적인 혁명의 이념의 사회, 정치적 내용은 수용하지 않는 대신 새로운 인간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삼았다.

구축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품 'The Big Railroad Picture'(그림 5)는 기동과 선들이 직선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며 기차의 역동성과 혼



〈그림 1〉  
Self Portrait  
(1918)

출처:www.moholy-nagy.org



〈그림 2〉  
Tilled Fields  
(1920-1921)

출처:www.monoskop.org



〈그림 3〉  
Peace Machine  
Devours Itself

출처: 박신의.  
2017.p.20.



〈그림 4〉  
Bridges

출처:https://monoskop.org



〈그림 5〉  
The Big Railroad  
Picture (1920)

출처:www.museothysseus.org

돈을 화려한 색채를 통해 재현하고자 했다(김남훈, 1997). 예술이 시대의 현실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적 발전에 부응해야 한다고 믿었고 당시 근대 사회의 상징인 철로, 다리, 기차를 작품에 대입하였다. 문자와 기하학적 형태가 결합되어 도식화적인 구성으로 나타내져 있고 제목에서도 추론 할 수 있듯 건물목을 통해 철도 세계를 만들어내었다.

## (2) 중기(1922~1938)

모홀리 나기의 초기 작품은 기하학적인 패턴을 이용한 작품으로 빛의 시각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절대주의나 구축주의의 영향을 받아 역동적인 구성과 대각선 구도 등을 통해 평면에서 입체의 움직임의 착시를 불러일으키길 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그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비대상(non-objective)' 회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역동적이며 간결한 선과 구도로 공간을 구현했다. 'Glass Architecture' 〈그림 6〉는 모홀리 나기가 최초로 제작한 비대상 회화로 잡지 'MA'의 표지로 제작되었다(고동연, 1996). 이후 1922년 모홀리 나기가 발표 한 논문 '빛: 새로운 조소적 표현매체(Light: A Medium of Plastic Expression)'를 보면 새로운 시각적 전달 매체를 빛으로 정의 하는데 이후 원, 삼각형, 사각형 등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한 회화인 구축주의적인 회화는 완성단계라고 할 수 있다(김남훈, 1997).

그러한 영향으로 그는 비대상 회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제작 했는데 그의 또 다른 비대상 회화 작

품을 살펴보면 'Yellow Cross Q VII'〈그림 7〉은 1992년 작품으로 캔버스의 역동적인 대각선을 볼 수 있다. 미색의 바탕에 노란색 반투명한 십자기를 올리고 가장자리에 진한 검은색 윤곽으로 완벽함을 강조하고 있고 십자가 아래로 회색의 직사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도형을 그려 넣음으로써 복잡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작품의 아래쪽에 위치하지 않고 중력을 거스르며 공간에 부유하는 듯 비스듬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수직이나 수평에 비해 더욱 불안정하고 역동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작품 'Composition Q VIII' 〈그림 8〉은 여러 형태가 겹쳐져 보이며 이전회화와 달리 투명한 모습을 보이는 투명 회화가 나타나게 된다(박상우, 2014). 이러한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1920년대 전통적인 매체인 회화와 조각을 손으로 표현하는 붓 터치 방법 보다 기계 같은 매끈함을 원했는데 붓 터치의 방법은 손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피하게 여겨 에어 브러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빛의 특성에 더 가깝게 표현하고자 했다(윤난지,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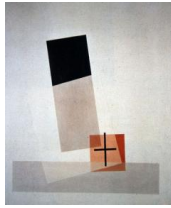
모홀리 나기는 빛을 새로운 회화의 재료로 삼고 빛의 효과를 모방하기 위해 투명성을 부여한 면들을 재현 하였고 색을 가진 빛이 투과되어 스크린에 비치는 듯한 회화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비대상 회화는 말레비치의 절대주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불투명 기하학적 모양을 특징으로 하지만 'A 19' 〈그림 10〉는 그의 스타일을 넘어 빛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형식이 투명성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



〈그림 6〉  
Glass  
Architecture  
(1922)  
출처:www.moholy-nagy.org



〈그림 7〉  
Yellow Cross  
Q VII (1922)  
출처:www.smart.sd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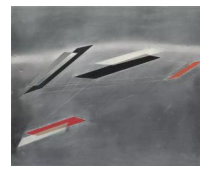
〈그림 8〉  
Composition Q  
VIII (1922)  
출처:www.rmgdesign.tumblr.com



〈그림 9〉  
A 19  
(1927)  
출처:www.moholy-nagy.org



〈그림 10〉  
AXL II (1927)  
출처:www.guggenheim.org



〈그림 11〉  
Sil II (1933)  
출처:www.guggenheim.org

여준다. A 19는 빛이 움직이는 듯한 형태를 보여주고 다양한 단계의 명도를 통해 마치 빛이 겹쳐져 있는 장면을 연상시키게 한다(고동연, 1996).

빛과 투명성을 구현하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대한 것은 러시아의 구축주의의 영향이 크다. 최소한의 색 만으로 제작했던 'AXL II' (그림 11)은 당시 새로운 사회를 위해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형태의 구축으로 중앙의 검은 원의 형태와 최소 색상의 균형으로 혁신적인 공간 관계를 형성하는 작품을 제작하길 원했다. 모홀리 나기는 빛의 반사, 굴절 또는 그림자를 통해 빛을 가시적인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로 금속물질을 선택하여 'Sil II' (그림 12)을 제작했다. 반사율이 높은 스틸을 사용해 스틸 표면의 모호한 공간을 표현했다.

(3) 후기(1939~1945)

라슬로 모홀리 나기는 빛으로 구성 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예술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투명 회화, 유리 건축을 통한 그의 탐구는 그를 만족시키지 못해 투명한 재료를 사용해 빛을 수용함으로써 그림을 다양하게 변형시켰다. 또한 빛을 새로운 표현 매체로 정의 하고 '빛: 새로운 표현의 매체(Light: A New Medium of Expression)'의 저서를 통해 회화의 색채를 대신하는 3가지의 빛의 요소가 있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 회화가 이전의 색을 어둡게 만드는 '삭제의 혼합' 이라고 칭하고 빛을 이용한 빛의 회화는 첨가 할수록 점점 더 밝아지는 '첨가의 혼합'이라고 칭했다(김남훈, 1997).

이러한 노력을 통해 회화에서도 투명한 플렉시 글라스를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플라스틱 재료 플렉시 글라스에 페인팅을 하거나 클립과 같은 물체를 매달아 빛이 통과하지 못해 캔버스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이용한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 과정은 불투명한 캔버스에서 할 수 없는 빛의 진동과 반짝임에 묘사했다. 또한 플렉시 글라스의 반사되고 투명한 성질은 빛의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모홀리 나기의 욕구에 도움이 되었고 제작 당시 결합이 있는 플렉시 글라스의 사용을 선호했다(Space-Modulator)(그림 12). 모홀리 나기는 이러한 계속 되는 작업을 통해 동적인 반사에



〈그림 12〉  
Space-Modulator  
(1939-1945)  
출처:www.moholy-nagy.org



〈그림 13〉 CH  
BEATA I (1939)  
출처:www.moholy-nagy.org

〈표 1〉 모홀리 나기 회화의 시대별 특징

시대	특징	작품
초기 (1918~1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경을 단순한 도형으로 표현</li> <li>• 다다이즘과 구축주의의 영향으로 추상적이고 기계적인 작품의 기하학적인 형태 표현</li> </ul>	
중기 (1922~19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비대상 회화 중심</li> <li>• 빛을 새로운 회화의 재료로 투명 회화 작품을 제작</li> <li>• 도형을 캔버스의 중앙에 위치</li> <li>• 초기의 작품에 비해 가벼운 회화</li> </ul>	
후기 (1939~19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을 새로운 표현의 매체로 정의</li> <li>• 투명한 재료를 직접 회화에 적용, 캔버스에서는 나타내지 못한 빛의 움직임과 색채 표현</li> </ul>	

의한 빛을 색채로 보아 색채 빛으로 그린다고 표현했다(Bauhausbucher, 2002).

모홀리 나기는 1930년에 완성한 빛과 동적 현상을 보여주는 장치인 빛-공간 변조기를 제작하였고 이 장치에 나타난 빛의 무늬를 이용해 회화 작품 ‘CH BEATA I’ 〈그림 13〉를 제작하여 시카고에 대한 행복과 안도감을 표현하였고 루즈하고 유기적인 형태의 스타일의 개발하고 빛-공간 변조기의 모티브를 더욱 강조하였다.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회화의 변화와 특징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 3) 모홀리 나기 회화의 조형적 특성

모홀리 나기는 미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을 필연적이라 여겨 예술에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접목시켰다. 바우하우스 교직원들 이전에도 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표현성이 억제된 색의 구성을 추구하였다. 선과 형태는 반듯한 선을 이용해 정확성을 보여주고 점, 선, 면 등 기하학적인 형태로 단순화 하여 표현한 작품을 제작했다. 또한 모티브

를 반복적으로 겹치고 색상의 명암을 조절한 중첩의 기법을 이용한 모홀리 나기의 작품은 역동성과 투명성을 보여준다.

#### (1) 선과 형태

초기의 모홀리 나기 작품은 구축주의와 다다이즘의 영향으로 기하학적이고 단순하고 간결한 작품 형태와 직선적인 반듯한 선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작품 ‘The Big Railroad Picture’ 〈그림 5〉은 작품에 기차길이라는 도시 문물을 부여하고 구축주의의 기계에 대한 사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기계적인 기하 형태, 직선의 느낌, 구조를 회화에 대입해 기계의 정확성, 구조의 완벽함, 기하학적 질서를 보여주었다(박상우, 2014). 캔버스의 아래쪽에 보면 또한 대각선을 작품에 부여해 수평과 수직선을 사용한 작품에 비해 역동성을 드러내는 조형적인 특징을 가진다(고동연, 1996).

중기의 작품은 초기와 비슷하게 간결한 선과 기하학적인 도형을 이용했다. 하지만 초기와는 다르게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비대상 회화로 투

명성이 부여된 도형이 그려져 있는데 초기에는 'The Big Railroad Picture920' <그림 5>와 같이 중력이 작용하는 듯 캔버스의 아래쪽에 도형이 위치해 있지만 이후 'Composition Q VIII' <그림 8> 작품에서는 캔버스 중앙에 부유하듯 중첩되어 위치하고 있어 빛이 캔버스에 그려진 듯한 느낌을 준다.

'A 19' <그림 10>은 어두운 빛을 의미하는 검은 원과 밝은 빛인 흰색 원과 함께 명도를 달리 한 사각형을 배치시켜 마치 빛이 움직이는 듯한 운동감을 표현하였다. 'Sil 2' <그림 12>은 빛이 반사되는 알루미늄시트에 그린 그림으로 작품 중앙에 무채색의 사각형이 떠있고 각각의 무채색 사각형에 이어진 유채색 사각형 공간들이 직선을 통해 빛이 반사 된 것처럼 표현되어있다.

모홀리 나기의 후기 작품은 투명한 판에 불투명한 물체나 안료를 사용해 빛을 반사, 굴절시키 나오는 결과를 캔버스위에 표현 했다. 이러한 표현은 빛-공간 변조기라는 모홀리 나기의 대표적 조형물로부터 나온 발상인데 금속, 유리, 나무 등 다양한 재료가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빛을 비추면 여러 형태의 그림자가 나올 수 있게 만든 장치이다(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05). 그의 작품의 빛, 투명성이라는 개념은 모든 작품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회화를 포함에 다양한 매체의 중심 테마였다. 따라서 모홀리 나기는 플렉시글라스를 가열하고 성형하여 빛을 왜곡하는 듯한 결과를 부여하였고 흠집이 있거나 불량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 우연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선호했다(박상우, 2014). 또한 중기의 작품보다 유기적이고 루즈한 형태의 선을 사용해 더욱 운동감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었다.

'CH BEATE I' <그림 13>의 "CH"는 미국의 시카고를 나타내고 "BEATA"는 그의 제 2의 도시 또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닿았을 때 행복함과 안도감을 의미한다. 루즈하고 유기적이며 동적인 스타일을 발전시켰는데, 여전히 중첩시키고 투명성을 이용한 모홀리 나기만의 독특한 방식은 유지하여 표현 하였고 그의 작품의 도트 무늬는 '빛-공간 변조기'(1929)의 도트무늬를 암시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던 다양한 표현기법들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구겐하임

미술관).

모홀리 나기의 회화 작품은 대부분 작품의 형태를 도형으로 단순화 시키고 도형을 직선으로 나누어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그는 직선과 곡선을 통해 리듬감과 운동감을 나타내고 빛을 회화의 재료로 사용해 빛의 굴절, 반사, 그림자의 생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로 확실하게 지각 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존재로 표현했다. 또한 모홀리 나기는 기본적인 조형 요소를 통해 사각형의 대각선적인 배치나 다시점의 면들을 단일 면에 표현함으로써 착시의 방법으로 시공간을 재현하고 선의 구성으로 새로운 공간을 구현하여 역동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 (2) 색채

모홀리 나기는 회화의 목적은 색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규정 할 정도로 색에 중요도가 높았다(김남훈, 1997). 또한 색채는 섬세하고 미묘하게 표현되어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변화해야 하며 한 장의 회화가 가진 색채의 조화는 논리적인 두뇌활동, 지적활동으로는 포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Bauhausbucher, 2002).

모홀리 나기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바우하우스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R(Red, 빨강), Y(Yellow, 노랑), UB(Ultramarine Blue, 파랑), SG(Sea Green, 녹색), O(Orange, 주황), T(Turquoise, 청록), P(Purple, 보라), LG(Leaf Green, 연두)의 8가지 색을 3단계로 나눈 24개의 색상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오스트발트 색채 이론을 중심으로 기하 추상 작품을 제작하였다(윤난지, 2009).

1918년부터 단색 왁스를 이용한 작품을 시작으로 1919년 이후 비대상 회화를 시작으로 유채색을 사용한 작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Tilled Fields' <그림 2>처럼 고채도의 유채색을 사용하여 밭을 묘사했는데 파랑, 초록의 등장 보다는 난색 색상의 존재를 더 쉽게 볼 수 있다. 'The Big Railroad Picture' <그림 5>와 같이 명도 차이로 명도대비를 주는 작품을 볼 수 있다. 초기의 회화 작품에 각 컬러의 RGB값을 추출하여 색상, 명도, 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초기에는 고채도와 중간 이상의 명도를 가진 빨강, 주황, 노랑

〈표 2〉 모홀리 나기 회화의 조형적 특성

시기	선과 형태	색채	작품
초기 (1918 ~1921)	단순하고 간결한 직선적 형태의 작품과 기하학적인 구조를 회화에 보여주고 대각선을 대입해 역동적인 형태 구성	높은 채도와 중간 이상의 명도를 가진 Red, Yellow Red, Yellow인 난색계열의 색이 빈번히 등장, 중기, 후기에 비해 한색의 등장 빈도가 높다.	
중기 (1922 ~1933)	유채색과 무채색인 기하학적 도형을 이용해 투명성을 표현하고 캔버스의 중앙에 도형을 위치시켜 부유하는 듯한 인상을 줌	낮은 명도부터 시작하여 중간명도와 중간 채도를 가진 Red, Yellow Red, Yellow, Yellow Green 의 난색 계열의 색이 주를 이루고 무채색인 White, Grey, Black이 초기에 비해 등장 빈도가 높아졌다.	
후기 (1934 ~1946)	흠집이 있는 플렉시 글라스와 재료를 사용해 빛을 왜곡하는 우연적인 결과의 작품을 선호. 자유로운 곡선은 역동감 부여	중간 채도부터 시작하여 고채도의 중~고명도의 Red, Yellow Red, Yellow의 난색 계열 컬러가 빈번히 나타나고 무채색 배경을 사용해 유채색을 더욱 강조	

등 난색 계열이 추출되었다.

현대 미술에서의 색상과 빛은 비대상 회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모홀리 나기는 색상의 표현을 통해 공간의 깊이를 구성했다. 중기는 초기 보다 채도가 낮은 색채들을 볼 수 있었고 무채색이 초기에 비해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모홀리 나기의 회화는 빨간색과 노란색의 존재를 빈번히 확인 해 볼 수 있는 것처럼 1924년에 제작된 중첩된 사각형과 원과 투명성을 이용한 작품, 또한 검정과 흰색, 회색인 무채색을 주로 사용하고 노랑과 빨강으로 포인트를 주어

한색과 난색의 교차로 공간감을 형성한다(고동연, 1996). 또한 ‘A 19’ 〈그림 10〉 작품에 나타나듯 유채색 주변에 광선처럼 나타나는 무채색의 등장 또한 White, Grey, Black의 등장 빈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중기의 작품을 RGB값을 추출하여 색상, 명도, 채도를 비교해 보면 낮은 명도에서 시작해서 중간명도까지, 중간채도를 가진 Red, Yellow 등 난색 계열의 색이 주를 이루며 초기보다 소프트해진 색이 사용되었다.

초기의 색상은 고채도의 컬러가 캔버스 전체



에 보았다면 후기는 ‘CH BEATA I’ <그림 13> 처럼 Black과 White가 배경을 이루고 Red, Yellow 컬러로 유기적 곡선을 통해 강조하는 구성을 볼 수 있다. 후기 회화 작품의 RGB값을 추출하여 색상, 명도, 채도를 비교하면 명도가 낮고 채도가 높은 컬러가 등장하며 무채색의 배경을 사용해 유채색을 더 강조하는 색상 구성을 보여 준다.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3) 중첩

회화에서의 중첩 기법의 유형은 겹침, 투명, 반복, 관입으로 분류된다. 겹침 유형은 평면끼리의 중첩, 화면과 오브제 또는 빛의 중첩, 농도가 다른 면들의 중첩을 예로 들 수 있고 반복 유형은 지우는 행위 반복, 이미지가 반복되는 유형이다. 관입 유형은 각각의 요소들의 침투하며 중첩되며 2개의 독립된 캔버스가 관입되어 만들어진다. 투명 은 채색 단계에서 투명성을 조절하거나 투명한 오브제를 중첩시키는 중첩의 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임지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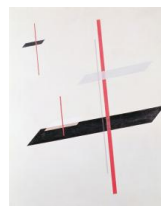
중첩은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작품에서 빈번하게 보이는 표현 방법 중 하나이다. 말레비치 절대주의에서 투명성의 아름다움이 도형을 투명하게 겹쳐 표현하는 투명 회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모홀리 나기는 이러한 기법이 자신의 작품에 독창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작품에 투명성을 부여하고 이 전 보다 더욱 가볍게 표현하였다(박상우, 2014). 모홀리 나기 회화 작품에서는 4가지의 겹침, 반복, 투명, 관입 유형 중 관입을 제외한 겹침, 반복, 투명 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모홀리 나기는 중첩을 고정되어있는 시, 공간을 극복하거나 무의미한 성질을 의미 있게 바꾸기도 하고 물질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인 성질을 표면화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캔버스에 여러 개의 소실점을 공존시켜 환영을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시점에서 관찰되는 면을 교차시켰다(C XVI)(박상우, 2014)(그림 14). 또한 흑인이나 백인, 정적임과 동적임, 수평과 수직, 행동과 반응처럼 반대 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흑색과 백색으로 수직과 수평으로 겹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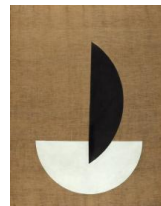
유형으로 중첩되며 위치하는 2개의 반원 또한 반대 단어 사이의 관계의 균형을 탐구하는 그의 노력이 담긴 작품이다(Circle Segments)(그림 15). 또한 평면인 캔버스에 오브제로 인해 나타나는 빛 또한 겹침 중첩이라고 할 수 있다.

모홀리 나기의 초기 작품 ‘Tilled Fields Painting’ <그림 16>, ‘F in Field’ <그림 21>, ‘Tilled Fields’ <그림 2>은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비슷한 크기의 사각형들이 대각선으로 반복되어있다. 이러한 표현은 역동적인 느낌을 극대화 한다. ‘Composition Q VII’ <그림 8>은 사각형의 반복 뿐 아니라 투명성을 표현하기 위해 도형을 중첩시키는 방법을 사용 했는데 이는 말레비치의 절대주의에서 투명성의 미를 표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박상우,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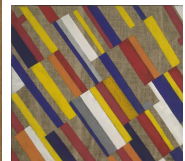
모홀리 나기의 작품을 살펴보면 중첩 기법의 유형 중에서 투명에 대한 작품의 비중이 높는데 그는 투명을 추구하는 것은 현대 가장 눈부신 정열이고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추구, 응용되고 모색되었다고 할 만큼 투명에 의한 중첩 기법은 그의 작품에 빠질 수 없는 표현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최선용, 2004). 그는 1922년 이후 투명한 면을 재현함으로 빛의 효과를 모방하는 작업을 보여 주었고 색광이 스크린에 투사되는 것처럼 그리기 시작했고 그 위에 또 다른 색광을 겹쳤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작업은 1925년 이후 빛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작품을 작업하기에 이르렀다(고동연, 1996). ‘Space Modulator’ <그림 14>는 플렉시 글라스와 캔버스를 중첩시켜 캔



<그림 14>  
C XVI (1922)  
출처:www.pinterest.com



<그림 15>  
Circle Segments (1921)  
출처:www.gugeenheim.org



<그림 16>  
Tilled Fields Painting (1920-1921)  
출처:www.moholy-nagy.org

〈표 3〉 모홀리 나기 회화에 나타난 중첩의 특성

중첩기법	특 징	작 품
겹침	비슷한 기하학적 도형을 겹치거나 캔버스에 플렉시 글라스와 오브제를 이용해 빛의 그림자를 만들어내 겹침 효과를 보여준다.	
반복	캔버스를 가득 채우는 비슷한 크기의 사각형들이 대각선 방향으로 역동적이게 반복되어 있다.	
투명	도형들의 명암과 채도를 달리해 투명한 도형이 중첩 되게 표현되어 있고 마치 광선이 캔버스에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버스에 그림자를 그리고 진동효과로 빛의 중첩 효과를 낸 작품이다. 그의 작품에서 빛과 투명성을 구현하는 단순한 기하학적인 도형들은 러시아의 구축주의에 영향이 크다. 작품 'A 19' 〈그림 10〉은 모홀리 나기의 빛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형식이 투명성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검정색과 빨간색의 광선은 다양한 레벨의 투명도로 서로 중첩되어 투명성을 나타낸다.

모홀리 나기의 회화 작품을 살펴보면 중첩 기법의 유형 중 관입을 제외한 겹침, 반복, 투명 유형중 투명 기법 유형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캔버스에 배치되어있는 도형들이 중첩되고 서로가 투과되어있는 형식으로 칠해져 마치 광선이 투명하게 교차된 것처럼 표현하고 명암의 대비를 통해 마치 도형이 중첩되어 있는 듯한 표현을 주기도 했다. 또한 기하학적인 형태들이 유리로 된 것처럼 투명하게 중첩되어 빛의 존재를 한 번 더 암시하기도 한다.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회화에 나타난 중첩의 특성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2. 애슬레저 룩

### 1) 애슬레저 룩의 개념 및 정의

애슬레저(Athleisure)는 운동이라는 뜻의 애슬레틱(Athletic)과 레저(Leisure)의 합성어로서 “가벼운 스포츠”로 번역 된다. 애슬레저는 일반적인 실외에서 하는 운동과는 다르게 도심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스포츠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헬스, 등산 등 아웃도어 스포츠 외에도 건강 증진과 자기관리가 목적인 여성들이 주로 즐기는 필라테스, 요가와 같은 스포츠를 애슬레저라고 할 수 있다. 애슬레저 룩은 스포츠 웨어와의 기준이 모호하지만 기능성에 더 중점을 둔 스포츠 웨어보다는 캐주얼웨어 아이템과 믹스 앤 매치가 쉬운 스포츠웨어로 기능성과 심미성을 합친 스포티 캐주얼웨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스포츠웨어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이달아, 2016).

선행연구에 의하면 애슬레저 룩의 넓은 의미는 스포츠 룩(sport look), 스포티브 룩(sportive look), 스포티 캐주얼 룩(sportcasual look), 액티브 스포츠웨어 룩(active sportswear look) 등으로

나누어진다. 스포츠 웨어는 착용자와 목적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스포츠 활동과 관람을 위해 착용하는 단어로는 액티브 스포츠웨어, 퍼스널 스포츠 웨어, 스트리트 스포츠웨어, 스펙테이터 웨어 등이 있고 레저 와 일상생활을 위한 스포츠 웨어의 단어로는 캐주얼 스포츠웨어, 시티 스포츠웨어, 스포츠 룩, 스포티브 룩, 시티 스포츠웨어 등이 있다(이채울, 2016). 산업혁명을 지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계의 발달로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와 레저가 일상화 되어 패션 또한 관심이 높아져 나타났다. 그 당시 코르셋에 몸의 죄고 있던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스포츠웨어로 코코 샤넬이 제작 한 저지 슈트를 시작하여 평상복과의 레이어링이 가능한 지금의 애슬레저 룩으로 발전해왔다(박정희, 2017).

스포츠웨어는 성립기(19세기 말-1910년대), 성장기(1920년대-1950), 성숙기(1960년대-1980년대), 혁명기(1990-현대)로 구분 할 수 있다. 처음 스포츠레저 웨어의 보편화가 시작된 19세기말, 성립기에 애슬레저 룩 또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스포츠 웨어는 상류층에서만 볼 수 있는 의복 이었다. 초기의 스포츠는 직접 참여 하는 활동 보다는 여가 활동의 의미가 더 컸다. 성립기에는 스포츠,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스포츠 웨어 또한 보편화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성장기 시기에는 1914년에 제 1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되고 남성의 빈자리를 여성이 대신하면서 여성의 사회 참여의 증가가 여성 스포츠 웨어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60년대 이후는 다양한 하위문화의 발전과 더불어 개성을 강조하는 패션 또한 다양해져 몸매를 들어내는 의상이 등장하면서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트렌드를 이어 세퍼레이트 스포츠 룩 웨어로 개성적이고 실용적인 스포츠 웨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패션에 녹아들면서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여성이 남성의 복식 스타일을 수용하는 해체주의적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하위문화에서도 성 구분이 사라진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의 개념이 등장 하였는데 이 중성적인 매력을 가진 문화의 팬츠 슈트가 애

슬레저 룩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이교영, 2018).

최근에는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스포츠 웨어 브랜드의 유행, 콜라보레이션을 이용한 컬렉션 또한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일을 끝내고 난 후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레저 활동에서 입을 수 있는 일상복과 스포츠 웨어의 장점을 가져온 애슬레저 웨어의 인기도 상승하고 있다(이채울, 2016). 80년대의 애슬레저 룩은 경제적인 풍족함을 자랑 할 수 있는 여성스러운 특징이 두드러지는데 현대 애슬레저 룩은 실용적이면서 스포츠웨어가 아닌 캐주얼 웨어와 레이어드가 가능한 심미적인 면도 필요하다(이교영, 2018).

이와 같이 애슬레저 웨어는 스포츠 웨어보다는 가볍고 일상생활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패션으로 운동의 기능적인 면을 보여준 스포츠 웨어와 심미적인 면을 보여주는 일상복 사이에서 합의점을 둔 패션이라고 할 수 있다.

## 2) 애슬레저 룩의 표현 특성

애슬레저 웨어의 특징은 신축성이 높은 소재와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기능적인 면과 더불어 개성적인 현대 시대에 중요한 심미성을 가지고 있어 일상복과 레이어링이 가능하여 실용적인 면을 갖추고 있다. 애슬레저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달아(2016)는 도시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스포츠웨어로 여성복 애슬레저 바이크 웨어 디자인을 연구하였다. 또한 앞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애슬레저의 색상특성으로 무채색 계열 중심, 원색의 활동성 표현, 고명도 색상의 사용을 도출하였고 소재의 특성으로 고 기능성 소재의 사용으로 신축성, 흡한속건성, 통기성 등의 스포츠 웨어 중심의 특성과 디테일부분의 특성으로 편의성, 실용성, 기능성, 심미성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반영한 애슬레저 웨어의 디자인 특성은 고 기능성 소재의 사용과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용 가능한 스타일로 기능성, 단순하고 절제되며 다양한 아이템과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한 실용성, 패션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거나 건강한 아름다움을 표현 할 수 있는 심미성을 적용 시켰다.

이채울(2015)은 애슬레저 웨어에 새로운 컷아웃 기법을 적용하여 독창적인 웨에슬레저 웨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스포츠 활동의 효율성을 높인 스포츠 웨어의 기능성과 다양한 상황에서 착용 가능한 다 기능성의복으로 일상 패션과의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한 기능성과 자기 관리가 중요시 되는 현대에 가꿔진 몸매가 미의 기준이며 아름다운 신체를 드러내기 위한 욕구가 스포츠 웨어에 반영되면서 관능성이 애슬레저 웨어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골프, 승마, 요트 등 이러한 고급 스포츠는 사회적인 지위를 과시 할 수 있고 고가, 고급 스포츠 활동으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스포츠 웨어 또한 과시의 대상이 되어 애슬레저 웨어의 특성으로 과시성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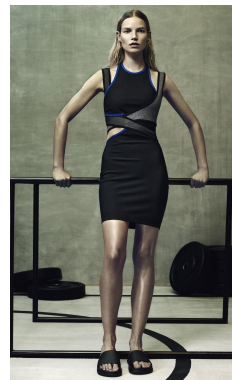
박정희와 이연희(2017)의 연구에서는 알렉산더 왕 컬렉션의 애슬레저 룩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알렉산더 왕은 여성의 곡선적 인체미를 강조하는 스트레이트 실루엣과 아워 글래스 실루엣의 사용으로 관능성이 나타나면서 활용성과 실용성이 높은 아이템과 매치를 보여주었다(그림 17). 활동하기 편하고 오버 사이즈 아이템과 신축성이 좋은 소재 사용으로 실용성이 좋고 생동감 있는 디자인과 기능적 특성으로 역동성을 도출하였고 공격적이고 거친 장식을 사용으로 하위문화 스타일을 강조하고 저항성의 특성을 띄고 있다(그림 18). 또한 모순되고 이질적인 것들의 조화로 의외성을 언급했는데 알렉산더 왕의 컬렉션에서는 시각적인 재미, 유희적 표현으로 나타났다.

권정숙(2017)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 웨어의 표현 경향과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포츠웨어 브랜드, 아웃도어 브랜드, 여성복 브랜드, SPA 브랜드를 중심으로 애슬레저 웨어의 표현 경향과 특성을 연구하였다. 일상생활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스포티브 웨어를 애슬레저 웨어라 칭하였고 퍼포먼스 특성을 강화하여 패션성을 부여하고 자기 관리와 스포츠의 일상화로 활동성을 강조하고 다른 패션 아이템과의 활용성을 높여 패션성을 높이며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신축성은 물론 기능성을 높인 애슬레저 웨어 디자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의 애슬레저 표현 경향은 다양한 복합 기능성을 겸비한 기능성 소재의 사용으로 기능성 강조와 트렌디한 패턴, 부자

재를 사용해 심미성을 보여준다. 일반 여성복 브랜드는 스포츠 활동의 일상화로 운동복이나 등산복의 장점을 살린 활동성이 강조된 의복으로 애슬레저 웨어를 표현한다. SPA 브랜드는 일상생활의 편안함과 패션성을 가미하여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경쟁력으로 트렌디한 애슬레저 웨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교영(2018)은 현대 애슬레저의 개념과 정의를 규명하고 최근 컬렉션에서 나타난 애슬레저 패션의 표현 양상을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애슬레저 룩을 일상에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스포츠 웨어의 용어로 가벼운 스포츠 웨어라 표현하고 운동복과 일상복을 동시에 활용 할 수 있는 스타일이라 정의했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 룩의 분석으로 4가지의 이미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럭셔리, 페미닌, 매니쉬, 모던, 레트로의 이미지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조사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성, 패션성, 활동성의 특성을 도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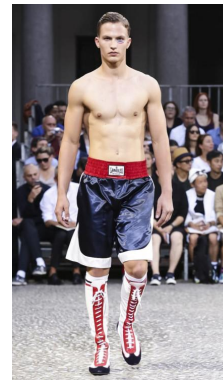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선행연구 조사 분석한 결과 기능성, 심미성, 실용성, 관능성, 과시성, 활동성, 역동성, 패션성의 특성을 도출하였고 애슬레저 웨어를 상황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어 일상복과 믹스 매치가 가능한 스포츠웨어로 정의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7〉

Alexander Wang x  
H&M

출처:www.glamour.com



〈그림 18〉

Moncler Gamme Bleu  
2015 S/S Paris

출처:www.style.co.kr

### Ⅲ. 작품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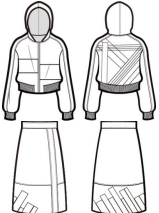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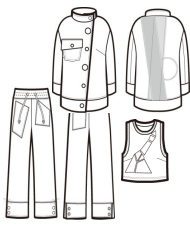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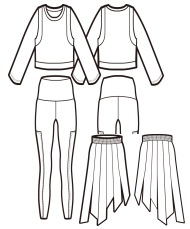



1. 작품제작 의도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 구성주의 작가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회화 작품의 선과 형태, 색, 중첩의 조형적 특성을 애슬레저 패션 디자인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모홀리 나기의 직선과 기하학적 도형의 역동성과 중첩의 유형인 겹침, 반복, 투명 등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하여 애슬레저 패션을 디자인 전개 제작하고자 한다. 모홀리 나기에 대한 선행연구와 분석을 통해 모홀리 나기의 삶의 큰 이슈와 회화 표현의 변화

를 바탕으로 작품 활동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가진 중기를 2단계로 나누어 작품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 작품의 테마는 계속, 반복의 뜻으로 겹쳐지고 반복되는 중첩에 영감을 받아 'AND'로 선정 하였으며 모홀리 나기 회화 작품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과 중첩의 특성인 겹침, 반복, 투명 을 이용해 작품을 시기별로 나누어 디자인을 전개하였으며 총 4벌의 애슬레저 패션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소재는 애슬레저 패션의 특성인 기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축성과 내마모성이 뛰어난 네오플렌, 통기성과 건조력이 우

〈표 4〉 작품 제작 계획표

작품	모티프	중첩특성	아이템	소재	색상	스타일
디자인 1		투명 반복	Hood Jumper Skirt	-Neoprene -Mesh		
디자인 2		겹침 투명	Half Coat Tank Top Track pants	-Neoprene -Mesh -Mesh jersey		
디자인 3		겹침 투명 반복	T shirts Leggings Skirt	-French terry -Mesh jersey -4 way Stretch		
디자인 4		투명 반복	Hood Shirt, Track pants	-Neoprene -Mesh		

수한 매쉬, 투습성이 좋은 저지 소재를 선택하였고 매쉬의 투명성을 이용해 모홀리 나기 회화에 나타난 중첩의 유형인 겹침, 반복, 투명성을 표현하였다(표 4).

## 2. 작품제작 및 설명

디자인 1은 모홀리 나기의 초기 회화 작품 'Tilled Fields', 'Tilled Fields Painting', 'The Big Railroad Picture'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컬러와 반복 중첩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단순하고 간결한 대각선과 기하학적인 도형의 형태로 초기 회화에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화면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대각선 조각과 기둥을 조합하여 역동성을 표현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활동하기 편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크롭 기장의 네오프렌으로 제작된 짧은 후드 점퍼에 포인트와 동시에 주머니로 활용할 수 있게 앞판 바스트 부분에 매쉬로 포인트를 주었고 후드의 크기를 몸판에 비해 크게 디자인하여 착용 시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었다. 어깨에서 소매까지 이어지는 직선의 느낌으로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하였고 뒷판은 매쉬를 전체적으로 사용해 관능미를 주는 동시에 통기성을 높여 운동복의 기능적인 면을 부여하였다. 네트 형식의 매쉬를 이용하여 크로셰 니트의 짧은뜨기 기법을 응용하여 표현하였다. 상의의 안쪽면에 짧은뜨기의 앞머리 부분이 올라오게 니팅하여 바깥면에 평평한 부분이 보일 수 있게 했다. 하의 또한 상의와 같은 회화 작품을 모티프로 A라인 스커트에 네이비 컬러로 상의와 같은 스포티한 직선 느낌의 포인트를 주고 밑단 매쉬 부분에 트임을 주어 활동성을 부여하였다.

디자인 2는 모홀리 나기의 중기 회화 작품 'Z VIII'의 투명 중첩, 'AM 7'의 겹쳐진 크고 작은 원들의 요소, 'A 19'의 투명한 사각형의 요소를 모티프로 활용하였다. 중기 시기의 특성인 무채색 바탕에 유채색과 무채색의 기하학적인 도형이 겹침 중첩을 이루어 캔버스 중앙에 표현되어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네오프렌 소재와 매쉬, 매쉬 저지 소재로 활동성과 기능성을 주어 운동 시 쾌적한 조건을 줄 수 있게 제작하였다. 무채색에 포인트 컬러를 줄 수 있

게 라이트 그레이, 다크 그레이, 화이트, 블랙을 주조색으로, 레드 컬러로 강조하여 다이나믹함을 보여주었다. 상의 하프코트의 전체적인 실루엣은 여성스러운 A라인과 터틀넥을 보여주고 바스트 부분의 주머니 또한 매쉬를 이용해 포인트와 실용성을 더했고 앞 중심을 수직이 아닌 비스듬하게 구성해 상승하는 대각선의 느낌을 주었다. 뒷판은 홉겹의 매쉬를 겹쳐 밑도있게 표현해 겹쳐지는 중첩의 실루엣을 보여주었다. 또한 소매와 밑단 부분에 몸판의 컬러보다 짙게 디자인해 명도대비를 주어 분리되는 느낌을 주었다. 탱크탑과 트랙 팬츠는 신축성과 통기성이 좋은 기능성 더블매쉬 저지 소재로 애슬레저 룩의 특성인 기능성과 활동성을 더했다. 가벼운 매쉬 저지 소재로 활동감을 높여 스포츠 웨어의 특성을 돋보이게 표현했다. 하의인 트랙팬츠의 포켓을 매쉬 소재를 이용해 변형된 사각형으로 디자인으로 모홀리 나기 작품의 기하학적인 도형을 표현하여 심미성과 활동성을 부여했다.

디자인 3은 모홀리 나기의 중기 회화 작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X 18'〈그림 45〉의 다른 컬러의 사각형 조각 요소, 'AXL II'〈그림 11〉의 투명한 광선이 겹쳐진 요소, 'Sil 2'〈그림 12〉을 모티프로 디자인 하였다. 밝은 느낌의 바탕을 라이트 그레이와 화이트 컬러로 표현했고 후기에 가까운 중기 모홀리 나기 비대상 회화 작품에 등장하는 떠다니는 마름모 도형을 보여주었다. 또한 애슬레저에 맞게 활동성이 좋은 니트 소재와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하였고 스커트는 통기성이 좋은 매쉬 소재를 이용해 활동 조건을 부여하였다. 상의 티셔츠는 니트 소재로 제작하고 통이 넓은 H라인의 실루엣으로 활동성과 크롭 길이의 기장으로 관능미를 주었다. 암홀 부분에 라이트 컬러로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 하의의 레깅스는 스판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하여 운동 시 활동성을 주고 하이웨이스트의 밑위길이를 허리 라인이 돋보이게 디자인하였다. 또한 크롭 길이의 상의와 하이웨이스트인 하의의 매치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듯한 실루엣을 주었다. 일상생활에서 레깅스 위에 입을 수 있는 스커트는 매쉬 저지 소재로 허리부분



〈그림 19〉 디자인 1, 후드 점퍼와 스커트



〈그림 20〉 디자인 2, 하프 재킷과 트랙팬츠, 탱크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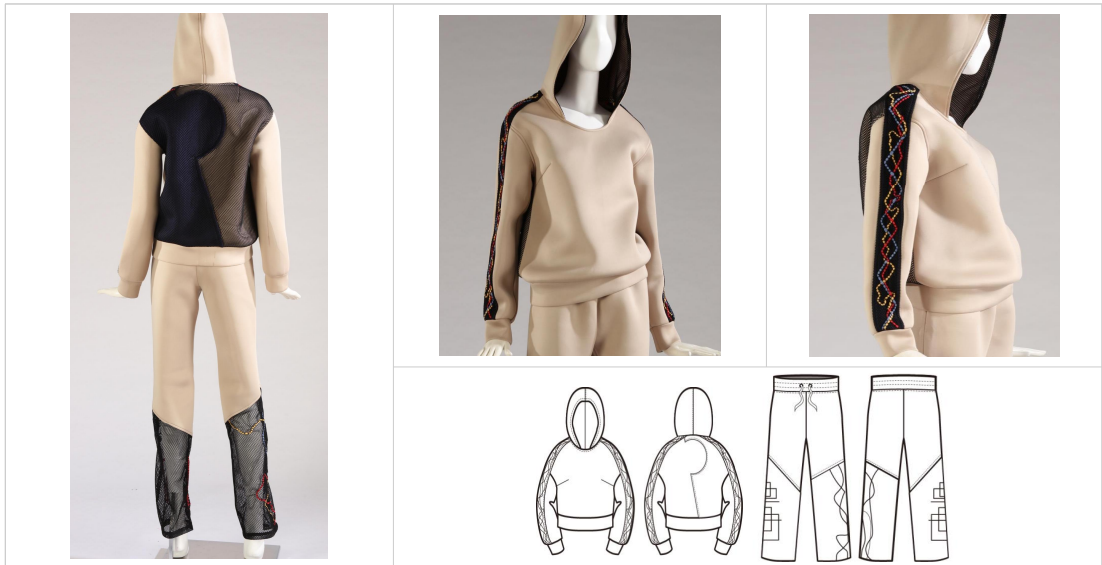
은 고무줄을 이용해 탈, 착의가 쉽게 디자인 하였고 모홀리 나기 중기 회화의 공중에 떠다니는 마름모꼴의 도형들을 표현해 A라인의 12조각 고어드 스커트로 디자인하였다. 밑단 부분

은 각각 조각이 박음질 되지 않고 분리된 형태로 활동성을 보여준다.

디자인 4는 모홀리 나기의 후기 회화 작품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Space Modulator’



〈그림 21〉 디자인 3, 티셔츠와 고어드스커트, 레깅스



〈그림 22〉 디자인 4, 후드셔츠와 트랙팬츠

〈그림 14〉의 겹쳐진 사각형의 반사되는 빛이 캔버스에 도착할 때의 요소, 'CH BEATA I' 〈그림 15〉와 'CH 7' 〈그림 53〉의 유기적인 곡선 요소, 'Leuk 4, 1945' 〈그림 54〉 작품 원

의 요소를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곡선과 캔버스에 반사되는 반복되는 사각형의 빛을 모티프로 디자인했다. 실루엣은 오버사이즈의 후드가 달린 후드셔츠와 H라인의 트랙팬츠를 디자인 했



는데, 상의 후드 셔츠는 모홀리 나기의 유기적인 곡선을 표현하기 위해 네이비 컬러의 네오프렌과 블랙 메쉬를 겹쳐 네크라인부터 소매부리까지 이어지게 일자로 디자인 하였고 뒷판에 잘려진 원의 느낌을 네오프렌과 메쉬를 통해 표현하였다. 소매에 있는 메쉬에 명도가 낮은 바탕에 비해 고채도의 레드, 옐로우, 블루 컬러의 자수를 사용하여 곡선이 더 강조되게 디자인했다. 하의는 일자로 떨어지는 트랙 팬츠에 무릎 밑으로는 상의에 사용 한 똑같은 메쉬를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었고 길이감을 다르게 주어 언밸런스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메쉬의 공간감을 이용하여 캔버스에 반사되는 움직이는 사각형들과 유기적인 곡선들의 모양을 자수로 디테일을 넣었고 투명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메쉬의 특성으로 관능적인 미를 보여준다.

#### IV. 결론

본 연구는 라슬로 모홀리 나기 회화 작품의 특성을 활용한 에슬레저 패션디자인을 전개 제작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모홀리 나기 회화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하고 에슬레저 패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선행연구와 문헌자료를 통해 모홀리 나기의 작품 형성 배경과 예술사적 배경을 조사하고 시대별 이슈를 통한 분류를 기준으로 조형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라슬로 모홀리 나기 초기 회화의 특징은 풍경을 단순화한 도형으로 표현하고 다다이즘과 구축주의의 영향으로 추상적이고 기계를 모티프로 제작한 구축주의 작품이 등장하였다. 중기 회화는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비대상 회화를 중심으로 빛을 새로운 재료로 사용하여 가벼운 회화를 보여주었다. 후기의 회화 작품은 빛을 새로운 표현의 매체로 정의하고 투명한 재료를 직접 작품에 사용하여 캔버스에 안료로는 내지 못하는 빛의 특성들로 작품을 제작해 움직임의 보여주었다. 모홀리 나기 작품의 또 다른 조형적 특성은 중첩이다. 중첩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조사 결과 모홀리 나기의 작품에서도 비슷한 도형이나 모티프를 겹쳐 표현하는 겹침, 비슷한 모양의 도형들이 대각선으로 반복되어 있는 반복, 캔버스에 안료를 이용해

명암과 채도를 달리해 투명한 도형이 겹쳐져 있는 유형인 투명의 특성으로 유형이 나타났다.

에슬레저 패션은 운동할 때 뿐 만 아니라 일상복과 다양하게 믹스 매치가 가능한 스포츠웨어로 정의되었다. 선행연구 조사 결과 에슬레저 패션의 특성은 기능성, 심미성, 실용성, 관능성, 과시성, 활동성, 패션성, 역동성 등이 나타났다. 또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슬레저 패션 디테일로 쿠티르 요소를 결합해 자수를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상반된 장르의 아이템을 조합해 이질적인 조합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조사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라슬로 모홀리 나기 회화 작품을 활용한 에슬레저 패션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주제는 계속, 반복의 의미와 겹쳐지고 반복되는 중첩에 영감을 받아 'AND'로 선정하였고, 모홀리 나기 작품 중 조형적 특성이 나타난 회화의 모티프를 활용하여 4벌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모홀리 나기 회화 작품의 조형적 특성으로는 선과 형태, 색상, 중첩을 위주로 활용하였다. 중첩의 특성으로 나타난 겹침, 반복, 투명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매쉬 소재와 수공예 작업을 활용한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또한 에슬레저 패션의 특성인 기능성, 실용성, 관능성, 활동성, 역동성 등의 특성을 부여하였다.

작품 제작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홀리 나기 회화 작품의 시대별 특징, 선과 형태, 색, 중첩 모티프들을 패션의 모티프로 응용함으로써 예술 작품과 패션과 콜라보레이션을 추구하여 창조적인 작품 표현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에슬레저 패션은 일상복과 믹스 매치가 가능한 운동복으로, 기능성, 심미성, 실용성, 관능성, 과시성, 활동성, 역동성의 특성과 함께 다양한 수공예적 요소와 가치를 가미한 디자인 전개는 창의성은 물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무채색과 유채색의 조화는 더욱ダイナミック하고 활동적임을 보여주고 역동성의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는 잠재성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회화 작품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될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고동연. (1996).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작업에 나타난 역동성 원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겐하임 미술관. (n.d.). 자료 검색일 2018. 5. 14, 자료출처 <https://www.guggenheim.org/artwork/2986>
- ‘莢, 나이키 선호도 가장 높아’ 패션 브랜드 선호도. (2018. 5. 4). 국제섬유신문. 자료검색일 2018. 5. 9, 자료출처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137>
- 권정숙. (2017). 패션산업에 나타난 애슬레저의 표현 경향과 특성.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2), 25-35.
- 김남훈. (1997). *라슬로 모홀리나기의 '빛-공간 변조기'에 나타난 '빛'과 '공간' 構築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우. (2014). 아방가르드 미술과 모홀리 나기의 매체 미학. *현대미술사학회*, 36, 153-181.
- 박정희. 이연희. (2017). 알렉산더 왕 컬렉션에 나타난 애슬레저 룩의 특성. *복식문화연구*, 25(6), 862-879.
- 박신의. (2017). *멀티미디어 아티스트 라슬로 모홀리나기*. 서울: 디자인 하우스.
- 장병창. (2017. 7. 31). 애슬레저 붐은 언제까지-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 데일리뉴스. 자료검색일 2018. 4. 23,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67061](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67061)
- 윤난지. (2009). 미술, 과학, 과학기술 - 나눔 가보와 라슬로 모홀리 나기의 작업. *미술사논단*. 29, 297-326.
- 이달아. (2016). *도심형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애슬레저 바이크 스포츠 웨어 제품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채울. (2016). *컷아웃(Cut-Out) 기법을 응용한 애슬레저(Athleisure) 룩 디자인 개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교영. (2018).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애슬레저(Athleisure)룩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 74-77.
- 임지아. (2011). *현대 패션에 표현된 중첩 기법의 유형과 미적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경. (1995). *Laszlo Moholy-Nagy 論 : Bauhaus에 있어서 Moholy-Nagy 기초 조형교육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용. (2004). *목면의 중첩에 의한 투명성 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석. (2016). 러시아 구축주의와 사회혁명: 새로운 삶과 인간의 형성을 위한 건축적 실험. *러시아연구*, 26(2), 361-397.
- 장병창. (2016. 5. 25). ‘포브스 나이키 루이비통 제쳤다’ 어패럴 뉴스, 자료검색일 2018. 5. 9, 자료출처 <http://www.apparelnews.co.kr/naver/view.php?id=61330>
- 티센보르네미사 미술관. (n.d.). 자료 검색일 2018. 4. 23, 자료출처 <https://www.museumtyssen.org/en/collection/artists/moholy-nagy-laszlo/large-railway-painting>
- 한가람디자인미술관. (2005). *라슬로 모홀리나기*. 서울: 미디어와이드.
- Bauhausbucher. (2002). *Bauhaus*. 서울: 이엔지북.